

| 아마추어천문인과의 만남 |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성채연 과학문화해설사

故우장춘박사 48주기 추모식



짧았던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성채연 씨를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이하 과기협)에서 과학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채연 씨는 2009년 세계 천문의 해에 부산시민천체관측단 자원봉사자 대표직을 맡아 천체관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공로가 인정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수여한 특별봉사상을 받았다.

“부산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을 받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을 주신 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대표였고, 그 상징성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기협에서는 2006년부터 과학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숲을 안내하는 숲해설가나 유적지를 안내하는 문화유산해설사 처럼 과학문화해설사는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 수련원 등지에서 과학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1기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과정은 초급반, 중급반이 있고, 중급반은 다시 기초반, 해양반, 천체반으로 나뉘집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천문의 해와 관련해 많은 행사가 있어서 천체반 수료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수료생들 대부분은 성인이에요. 저 같은 주부들이 많죠.”

이어진 ‘아주머니들의 활동이 대단하시네요.’라는 기자의 말에 성채연 씨는 ‘아주머니’라 표현에 대해 작은 불만을 표했다. “특별봉사상 시상식 때도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님이

상을 주시면서 ‘대단한 아주머니들이 오셨습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머니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각자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설을 하는 해설사들에게 아주머니라는 호칭은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웃음과 함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성채연 씨의 표정에서는 해설사로서의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졌다.

성채연 씨는 과학문화해설사를 하기 전까지는 천문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고 한다.

“조금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산 지역에는 천문대도 없고 배울 만한 곳도 없었어요. 천문대를 처음 접한 건 김해천문대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희 아이와 함께 찾았던 때였어요. 올해 고 3이 되니 시간이 꽤 됐죠. 그때 그곳에서 받은 감동이 대단했어요. 그 이후 과기협이 천문에 대한 저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죠.”

천문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은 성채연 씨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일단은 별 보는 게 바깥 활동이다 보니 추운 게 가장 힘들어요. 덕분에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웃음). 한번은 망원경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흑점 관측을 하다가 필터가 없는 걸 모르고 맨눈으로 봤다가 실명할 뻔 했어요.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일 이후로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별 보는 게 이래저래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몸이 조금은 고달프지만 별을 알기 시작하고 조금씩 빠져 들던 때는 늦은 밤에 '번개' 모임을 가지면서 별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열정이 조금은 식은 것 같다한다.

“현재는 천문지도사 3급 자격을 갖고 있어요. 잠자는 열정을 깨우려면 2급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수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교육이 대부분 서울이나 대전 등지에서만 있다 보니 참석 자체가 어려워요. 올해는 아이가 고3이어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꼭 도전하려고 해요.”

관측은 집에서 멀리 않은 금정산을 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동네 운동장이나 아파트 공터에서 하기도 한다.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있으면 뭘 보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보여줄 수 있냐고 하는 분도 계시요. 보시면 굉장히 신기해해요. 작년에는 ‘우리 동네에 별이 떴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분들에게 별을 보여드렸죠. 아이들도 많이 왔지만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별과 망원경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던 동네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는 행사여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도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저보고 아이가 그래요. 엄마는 참 행복하겠다고요. 하늘을 보면 저 별이 뭐라는 답이 나오니까요.”

성채연 씨는 별 보는 일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우주를 이야기 해주는 일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한다.

지난해 동래읍성 북문 앞에는 장영실과학동산이 문을 열었다. 혼상과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 혼천의, 앙부일구 등 9종의 조선시대 천문기기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설치돼 있는 이곳도 성채연 씨의 활동 무대이다.

“고천문 쪽이다 보니 좀 어려워요. 천상열차분야지도 하나만 해도 공부할 게 엄청 많거든요. 옛날 시각법도 알아야 하고, 사주팔자에 나오는 육십갑자도 알아야 하고요. 정말 길거리에서 사주팔자 책을 펼쳐놓고 점을 봐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약으로 운영되는 장영실과학동산에는 1회에 40여 명이 참가해 해설을 듣고 간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한다.

“해설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죠. 그래서 잡학 다식 하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해요.”

해설은 주중에도 하지만 관람객이 많은 휴일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 못하는 날이 많고 적지 않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 정말 싫어했어요. 밤에 나가고 밤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지금도 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줘요. 몇 시에 오느냐고 묻기도 하고, 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설거지도 해주곤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엄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천문대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도시도 비슷하다.

“다행히 지난해 말에 동남권국립부산과학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올 하반기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인데, 과학관에 천문대도 함께 만들어지겠죠. 과학문화해설사로서는 그런 과학관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기쁜 일이죠. 다만, 만들어지는 동안 제 나이도 함께 늘어 간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예요. 그래도 해설사는 60, 70세에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나이와 관계되는 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녀야 하는 관측이란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옮기고, 설치하는 건 지금도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한다.

“기계치인데다가, 제 손이 닿는 건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망원경을 만질 때는,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잔뜩 겁을 먹었어요. 물론, 지금은 익숙해져서 잘 다루지만요.”

생태에도 관심이 커 생태해설사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성채연 씨는 동남권국립부산과학관이 완공되면 그곳에서 해설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희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는 천문지도사 2급에 도전할 예정이란단.

인터뷰를 마치고 성채연 씨의 안내로 장영실과학동산을 찾았다. 익숙한 앙부일구를 비롯해 다양한 조선시대의 천문기기가 알차게 전시돼 있었다. 기자도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천문기기가 무엇에 쓰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일반인이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설명문이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해설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해설사로부터 그냥 스쳐지나가며 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설명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숨은 이야기도…….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유적지에는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다. 눈으로만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꼭 해설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시길.

